

일주문



문수원 및 금강선원, BBS 1000만원 후원 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은 2월 28일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에게 BBS 우수 포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월정사 한암 스님 61주기 추모다례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6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한암 스님 61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033)339-6600



동화사 49일 생전예수재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4월 1일 동화사 통일약사기원대전에서 49일 생전예수재를 입재한다. (053)982-0101



조계사 화엄성중 111일 기도 입재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화엄성중 111일 기도를 입재한다. (02)732-2183



대흥사 호국성사 서산대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16일 대흥사에서 호국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한다. (061)534-5502



선운사 선명상 체험 고창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3월 23일 명상 지도사 이경남 씨 초청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63)561-1422



파계사 니르바나 대법회 대구 파계사 주지 범광 스님은 3월 7일까지 파계사 설법전에서 '제4회 니르바나 대법회'를 봉행한다. (053)984-4550

이현재 前 부총리 등 금강대 석좌교수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데미언 키온(Damien Keown) 前 런던대(University of London) 교수, 이현재 前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사진), 김형식 서울국제교육재단 이사장(서울국제학교 SIS 총교장)을 3월 1일자로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금강대는 불교학부 불교학과에 선진규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석사, 김해 봉화산 정토원장), 송병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를, 응용불교학과에 이해숙 교수(동국대 한국불교학과 박사)를 객원교수로 임용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공존·상생 정신을 사회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보선 스님

"공존과 상생 정신이 실현되는 경제정의 실현에 일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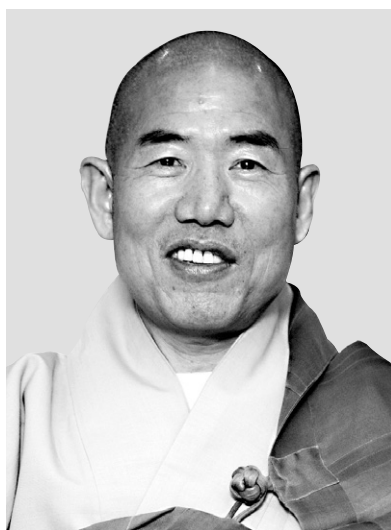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1989년 시민운동의 첫 신평안으로 설립된 경실련은 그동안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 곳곳에서 시민단체의 망령으로서 활동해왔다.

보선 스님(사진)은 2월 29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년간 공동대표로서 포부를 밝혔다.

보선 스님은 먼저 "경제에 대해 아는바 없는 수행산승에게 무거운 책무가 맡겨져 무거움이 막중하다"고 공동대표로서 책임감을 말했다.

이어 보선 스님은 "종교계의 경실련 참여는 경제전문가들이 경제 정의에 대한 논의와 실천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는 오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일궈지는 경제의 편향과 왜곡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경제 정의는 사회의 재화와 이익들이 못사람들 모두에게 비교적 평등하게 유통되고 교환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식적이고 명백한 목적을 위해 참신한 문제제기와 폭넓은 논의

들을 모아나가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선 스님은 경제정의실현의 이념적 기반 제공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바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의 실현해나가기로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상생하고 그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며 <잡아함경>의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잡아함경>에 재물을 부지런히 모으되 모은 재물은 4등분하여 보시와 저축 그리고 운영과 사업에 쓰라 하셨다. 이는 재물은 법당에 모으는 것 뿐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복을 쌓으면 살면서도 죽어서도 행복하다는 함께 사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선 스님은 1966년 용암사에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보선 스님은 1972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주지, 14대 후반기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업인의 도덕성 불교에서 배워"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지승동 제2대 회장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경제인불자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는 지난 2월 10일 신년하례법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회장에 지승동 대명종합건설 회장(사진)을 선출했다. 지승동 회장은 1972년부터 40여 년간 건설업계의 성공신화를 이룬 인물이다.

지 회장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영철학에 녹여 기업을 이끌어 왔다. 지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순리에 입각해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지승동 회장의 불교인연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지 회장의 어머니는 항상 영주 흑석사에 다니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지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어머니와 부처님을 떠올렸다. 그래서 항상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다"며 "불교는 나에게 기업인으로 사회적 도덕성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지승동 회장은 누구보다 사회적 도덕성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때문에 지 회장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승동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벤처기업 지원 빌딩을 건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지승동 회장은 "불자 경영인들은 남을 위하기 전에 자신부터 성실한 자세

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래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자연 스레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 회장은 "한국불교가 사회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불자 경제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인 불자들은 하나가 돼 경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처님의 자비정신 바탕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인불자연합회는 제2기 회장단에 수석부회장에 류병선 영도벨벳 회장을, 명예회장에 구자선 초대회장을 추대했다.

이은정 기자

한글염불지도교수 위촉

한글염불을 교육하기 위한 지도교수 스님들이 위촉됐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한글염불의례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한글염불지도교수' 위촉식을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글염불 지도교수로 위촉된 스님은 범경·용하·대광·선훈·보현 스님(이상 비구 5명), 성운·일각·금강 스님(이상 비구니 3명)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수목원 홍보부터"

이영경 교수, 불교수목원 설립위헌 2차 토론회서

불교수목원에 대한 불자 및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불교수목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불교수목원 추진과 별도로 관련 홍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와 조계종 환경위원장(위원장 장명)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수목원 설립에 관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사진)는 주제발표 '불교수목원 조성성 및 지침'에서 불자들의 불교수목원 관련 인식을 설문조사해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월 4~16일 사부대중 579명을 대상으로 불교수목원의 필요성과 조성원칙, 계획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조사결과 불자 및 일반인들 모두 불교수목원 설립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40.8%인 236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매우 시급하다'는 대답은 17.1%인 99명이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는 필요성은 3.67, 시급성은 3.38로 분석됐다.

이영경 교수는 "불교수목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거나 시급하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스님들 중에서



도 선방스님들의 평가가 낮았다"고 말했다.

불교수목원 조성원칙으로는 기존 사찰림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전통사찰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4.3 이상)

사부대중은 불교수목원에 '건강을 위한 명상 및 치유기능'을 가장 크게 기대했다.(39.8%) 또, '불교적 수행활동과 연계된 사색기능(38.5%)'과 '일반적 식물관상(5.1%)' 등도 원했다.

이 교수는 "불교수목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교계 내부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구성원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불교수목원의 차별성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날 토론회결과를 토대로 3월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불교수목원 조성지침과 원칙을 정리할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효일당 범행 스님 49재 봉행

보은 법주사 조실 효일당 범행 스님의 49재가 3월 3일 수원 팔달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을 비롯한 문도회 등 500여 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임종을 추모했다. (031)241-1005

노덕현 기자

전통범음·범패연구원 설립

태고종 광주·전남 총무원은 '전통 범음, 범패 연구원'(원장 호산)을 설립했다. 연구원은 안정불교대학 강주 상진 스님을 강주로 초빙했다.

호산 스님은 "질서 없이 이루어지는 불교의식은 불보살님 뿐 만 아니라 재가불자들에게도 업보를 짓는 것"이라며 "불교 전통의식 회복을 통해 수행 기초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울종)불교조계종 동안거 해제

울종)불교조계종은 2월 27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해인율원에서 동안거 해제 및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해인 스님은 "자정기의(自淨其意), 자기를 스스로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부처의 마음으로 이는 일체 우주의 불성이다"며 "부처님 경계에는 우주도 작은 것이고 우주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찰나라고 말씀하셨다. 스님들은 진정한 수행자로 열심히 정진하여야 한다"고 범문했다.

노덕현 기자

2012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International Buddhist Culture & Industry Exhibition 2012

일시_ **2012.03.15** 금 ~ **03.18** 일 **3**일간
장소_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2전시장**

주 최 |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Expert (주)엑스퍼트**
후 원 | 2012 여수세계박람회불교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본사, 태고총림선암사
참가문의 | 2012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사무국 062-383-6322